



미국의 직·간접 개입 규명돼야 4·3 퍼즐 완성

허호준의 '4·3, 미국에 묻다'
제주 현지 미·일 간 항복문서
무차별 사살 명령 기사 등
새로운 자료 발굴과 재해석
4·3과 미국 관계 집중 조명



미국은 과연 4·3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30여 년 제주4·3과 미국의 관계 규명에 천착해 오는 동안 그의 머릿속엔 이 같은 물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4·3 당시 숨탄 학살과 재산 피해, 살아남은 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시 정부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4·3의 전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고, 때로는 공개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때론 은밀하고도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미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학 박사인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가 4·3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단행본을 냈다. '4·3, 미국에 묻다' (도서출판 선인)로 제주 사회에 깊고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진행형 4·3의 퍼즐을 짜맞춰 가는 여정에서 묶였다. 제주 4·3평화재단의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로 석·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보면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그는 일본 방위청 소장 문서를 통해 일본군이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주도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체결된 영문과 일본 항복 문서도 발굴했다.

경비대의 초기 무장대에 대한 인식에도 주목했다.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이 제주도인민유격대(무장대) 사령관 김달삼과 협상하기 위해 4월 하순 뿌린 전단에는 무장대를 '폭도'나 '반도'가 아닌 '형제'라고 했고 '4·3무장봉기'를 '폭동'이나 '반란'이 아닌 '투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최소한 이 시점에서 경비대와 무장대 간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미군정의 개입으로 파탄났다고 했다.

1948년 5월 5일 제주도에서 군정장관 단 소장 등이 참석한 제주도 현지 회의에 대한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발굴했다. 허 기자는 이 회의와 관련된 소장과 조병욱 경무부장이 '무차

별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찾아냈다.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사태는 미 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고 한 발언 이전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인 미해군 함정이 3시간 남짓 기항한 사실도 소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미 의회 지도자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을 인지했으나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 중앙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의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평화협상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문서, 1948년 5월 5일 제주도 회의 문서, 계엄령과 초토화 관련 미국정부 또는 미군의 문서와 사진 등이다. 허 기자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로 4·3 취재와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그날의 제주’ 지켜본 사물들의 이야기

허은실 글·고현주 사진
4·3희생자 유품 등 기록
‘기억의 목소리’로 묶어

제주4·3 71주년인 2019년 11~12월 한 달 동안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놓였던 유품들에 얽힌 사연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허은실 시인이 글을 쓰고 고현주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기억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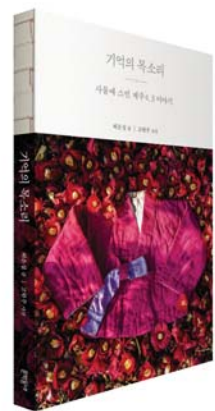
(문학동네)로 '사물에 스민 제주4·3 이야기'란 부제를 달았다.

당시 '기억의 목소리' 유품전은 소소하고 보잘 것 없는 물건들에 담긴 4·3의 역사와 기억을 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유가족 20여 명의 유품과 유해발굴을 통해 확인된 유물 사진을 촬영한 작품들이 나왔다.

동명의 제목으로 출간된 단행본은 전시가 끝나고 휘발됐을지 모르는 감정들을 활자와 이미지로 다시 불러와 '그날의 제주'를 지켜본 사물들이 건

네는 말들을 시와 사진, 인터뷰로 붙잡는다. 저고리, 비녀, 영정사진, 낚시 손가락, 재봉틀, 낫화로, 껌, 대박세기(쪽박), 해녀들의 물웃, 망주석, 은반지, 맷돌, 혼례복, 다듬잇돌, 그림, 성경책, 엽서, 무명천, 한복 등이다.

2018년부터 4·3 관련 유품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고현주 작가는 "흔사 세월의 흔적을 더께로 입고 남겨진 사물들은 4·3의 참혹한 현장 안에 있었다"면서 "날장의 사진은 그래서 알 수



없는 아우라를 당당히 뽐내고 있다. 그 아우라는 처참하고 아픈 역사의 시간을 뚫고 나온 힘이다"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제주 중산간 마을 목축 문화와 언어

제주학센터 구술 채록 진행
지역·세대별 4개 마을 대상

제주 섬의 목축 문화와 언어를 지역별로 다른 자료집이 나왔다.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펴낸 구술 자료집 '말은 뚝나게 부리콧 세는 세나게 부리라'다.

자료집의 제목은 "말은 힘이 들면

땀이 나고 소는 힘이 들면 허가 나온다"는 뜻을 지닌 제주 방언이다. 가족의 생애를 알고 소나 말을 부려야 한다는 구술 내용에서 가져 왔다.

이번 구술 자료집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지점의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조천읍 선흘리, 서귀포시 하원동, 남원읍 수망리가 그곳이다.

조사팀은 이 마을에서 과거에 테

우리(목동)가 직업이었거나 소나 말을 키웠던 경험에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온전한 목축 문화와 목축 관련 어휘를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술 채록에 나섰다. 제보자의 연령대는 50대 1명, 60대 2명, 70대 5명, 80대 5명, 90대 2명 등 총 15명으로 세대별로 다른 목축 문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자료집에는 마을별로 3~4명의 제보자 이야기와 조사 현장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구술 채록 내용은 소 기르기, 말 기르기, 마소의 종

류, 먹이, 목장관리, 도구 등으로 목축과 관련해 제주 방언으로 조사한 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사업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진행됐다. 2019년 1차 연도로 '제주의 전통 초가' 관련 조사를 벌였고 이번이 2차 연도인 2020년 사업이다.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제주학아카이브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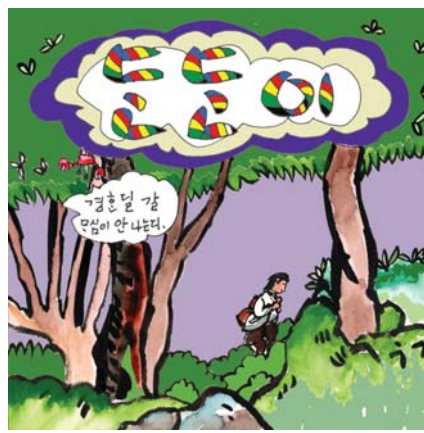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담관

<24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행이 골멘, "예. 경후주만 그 뒷산 넘영가쟁흔 막 멀쿠다양?"
하르바지 골멘. "경후주게. 산 넘영 가쟁흔 협흔 고갯질이 싯고, 멀어부난 사람덜이 잘 탕기질 안 후였주게."
준네 골았저, "경후틸 무사 혼차 그림 가쟁흔협싯고양?"
오행이 골멘, "누님 난양 아예 경후틸 갈 묵심이 안 나는데양."
하르바지 골멘. "기여게, 경후주만 그 남자 아은 묵심 둔동이 먹언 그자 앞테레만 보명 복지란이 곁여가지 안 후여시냐. 혼참을 가단 스방을 보난 낭덜로 찌각후연 약약후거라."

* 제주어 풀이

*넘영가쟁흔: 넘어가려면, *멀쿠다양?: 멀겠네요?
*탕기질 안 후였주게: 다니지를 않았지.
*혼차(환자, 혼제, 혼제): <이름>혼자
*가쟁흔협싯고양?: 가려고 하나요?
*묵심이 안 나는데양: 마음이 없는데요.
*묵심 둔동이 먹언: <어찌>단단히, 단단하게. 빠짐없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묵심 둔동이 먹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낭덜로 찌각후연: 나무들로 딱 차서.
*약약후다: <그림>조금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사리를 분간할 수 없다.

고재만 화백

문화가 쏘다

자연문화재 돌봄 보고서

갤러리 돌하나 전시 확정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원) 제주자연문화재돌봄사업단(단장 강영제)이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자연문화재돌봄사업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작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방폭포 등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59개소, 애월읍 금덕무환자나무와 팽나무군락 등 16개소의 시도기념물, 삼양동 흑사구충 등 향토유산 5개소, 서귀포 강생이굴 등 비지정문화재 149개소에 이르는 총 229개 관리 대상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사업단은 보고서 발간에 맞춰 최근 제주대 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기증해 지역의 관련 연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이도1동이 운영하는 '갤러리 돌하나' 전시 공모 결과 8팀이 선정돼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갤러리 돌하나의 이도1동주민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2015년 10월 문을 열었다. 이도1동은 지난 달 9~23일 2021년 갤러리 돌하나 전시 참여 작가 공모를 벌여 회화, 사진 등 개인 4명, 단체 4팀 등 총 8팀(명)을 선정했다. 선정 작가는 전시 일정순으로 팀오르다, 강인경, 고순선, 토막희, 양정임, 김산 등 6인, 김규남, 송동호사진공방이다. 이들은 매달 1팀씩 2주 일정으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한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전기 기술인력 모집

- 전기 공사/설계/공무 경력 및 신입
- 태양광발전 업무 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필수
▶이력서접수: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